

중첩을 응용한 현대 패션의 표현적 특성

김 현 미* · 임 지 영** · 장 애 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Modern Fashion Applied Superimposition

Hyun-Mi Kim* · Ji-Young Yim** · Ae-Ran Jang***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5. 10. 6 투고)

ABSTRACT

Superimposition is a transforming technique that can facilitate the creation. Superimposition in previous studies, however, has only been fragmentary described as an expression technique, so the studies have not been conducted on the basis of its aesthetic val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uperimposition is applied and expressed in terms of forms of modern fashion based on multi-dimensional features of design processing.

The codes of togetherness, ambivalence, sense of space and tension in dress were determined by using the expressional Superimposition. The forms of superimposition were limited to superimposition of clothing, superimposition of body and clothing and superimposition of body and Phenomenal body.

This study found that superimposition has developed, in fashion forms/types, a new "form" by overlapping various forms and thus provides a visual shock and a sense of mystery by using mismatched and arbitrary properties among the forms. Such a superimposition influences a methodology of fashion design through a designer's subjective tendencies, as well as influences a change in the view of the world. Also, a superimposition is expected to have a definite influence on new fashion trends.

Key words: superimposition(중첩), togetherness(집단성), ambivalence(양면성), sense of space(공간감), tension(긴장감),

I. 서론

20세기 후반부터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즘과 경향이 전개된 가운데, 전시대의 것과는 구별되는 문화계 현상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지칭되고 있다. Mogado에 의하면 포스트모던(Postmodern)은 아방가르드 문화의 소산물이거나 일반적으로 “the present”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또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감각들에도 사용되는 용어이다.¹⁾ 포스트모던은 과거의 절대적 논리와 인식구조를 파괴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복식의 형태 및 구성방식, 디자인 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고 부정한다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예술의 의미를 혼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선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창조적인 기능을 대행하는 것을 의미한다.²⁾ 한 예로, 다각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표현기법중 하나인 중첩(superimposition)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중첩은 이미 회화를 비롯한 조각, 사진, 영화, 건축 등의 문화전반의 새로운 조형형식으로서 형태 창조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긍정적인 조형인식의 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중첩은 고전적, 권위적 그리고 보수적 형식의 탈피를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창작을 위해 다양한 내용이나 형식에 차용이나 인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변형방식으로서³⁾, 패션에서도 중첩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적 특징을 바탕으로 표현되고 있는 현대 패션에서 중첩의 특성이 어떻게 차용·표현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패션이 조형예술로서의 발전은 물론, 창의적인 미래 패션을 창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첩의 개념과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Rudolf Arenheim⁴⁾의 <Art &

Visual Perception>에서 논의된 중첩 이론을 중심으로 중첩의 특성을 규명한다. 그리고 차용된 중첩 특성을 현대 패션에서 집단성, 양면성, 공간성, 긴장감으로 구분하여 표현 형식과 내적의미를 고찰한다.

연구방법은 미술과 미학, 의류학, 건축학 분야의 선행연구 및 문헌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중첩의 기법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작품을 선별하여 분석·해석한다. 패션전문잡지 Collezioni, Collezioni Donna, Collections, Mode et Mode의 화보를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II. 중첩의 개념 및 특성

1. 중첩의 개념 및 형성배경

사전적 의미로 중첩(Superimposition)이란 ‘여러 층이 겹쳐 있는 형태’를 뜻한다. 회화적 의미로는 플라주(Collage), 파피에 콜레(Papier Colle), 앓상블라주(Assemblage)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⁵⁾, 현대 건축에서는 동시성(Simulaneity), 상호관입(Interpenetration), 투명성(Transparency), 양면가치(Ambivalence) 등과 동의어로 이용되고 있다.⁶⁾

회화에서 중첩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큐비즘(Cubism)으로, 투명효과를 이용하여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어느 한 면도 강조하지 않고 대상의 여러 측면을 하나의 화면 속에서 동시에 표현하였다. 플라주 기법은 큐비즘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현기법으로, 중첩의 조형적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⁷⁾

러시아 구성주의(Constructivism) 예술가들은 공간을 직접적인 지각 대상으로 시각화하여 이러한 공간구성의 요구에 따라 ‘뼈대구조’ 또는 투명재료, 광선 등의 요소들을 도입하여 주로 공간과 공간의 중첩을 통해 조형물의 균형을 유지하며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건축 측면에서 데 스틸(De stijl)의 중첩은 자유로운 면들에 의해 발생된다. 면은 기하학적 질서에 의해 상호 관입되고 과거의 공간개념이 변형되어 내·외부공간이 밀접하게 상호 침투됨으로서 건축물에 투명성과 개방성이라는 개념을 부여하였다.⁸⁾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Rudolf Arenheim의 중첩은 한 단위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위에 있는 다른 단위로 가리어질 때 생긴다. 이때 한 단위가 부분적으로 다른 것과 겹쳐져 있을 경우, 그 겹쳐져 생략되어 있는 단위는 불완전하게 보이는 동시에 온전한 전체의 바른 모습으로도 보이는 것을 말한다⁹⁾. 이때 요구되는 적절한 지각조건은 투영의 효과에 의해서 서로 연결한 단위들이 서로 구분되고 동시에 다른 평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2. 중첩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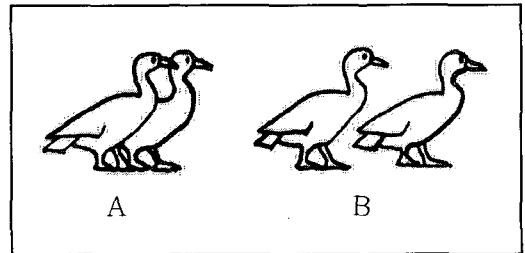
두 개 이상의 도형이 서로 중첩 될 경우, 각각이 공통으로 중첩된 부분을 주장한다면 공간적 차원의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그 모순을 해소하게 위해서 Gyorgy Kepes는 새로운 시각상의 특성의 존재를 추측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도형에 투명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투명성은 단순한 시각상의 특성 이상의 것, 즉 보다 광범위한 공간적 질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Moholy-Nagy는 형태의 중첩이 공간과 시간의 고정화(固定化)를 극복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첩에 의한 형태는 의미 없는 특이성에서 의미심장한 복잡성으로 변화되며, 중첩에 의한 투명감은 물질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성질을 표면화하면서 전후 배경의 투명성도 암시한다.¹⁰⁾

이러한 투명성에 대해 Colin Rowe는 중첩에 의해 발생되는 투명성을 현상적(虛) 투명성(Phenomenal Transparency)¹¹⁾으로 명명하여 실제적인 투명성과 구별하였다. 이에 김광현¹²⁾은 현상적 투명성이란 물체가 놓여 있는 배치 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관계의 투명성이라 하였는데, 관계의 투명성은 투명하지 않지만 지각적으로 공간의 전후가 인지되어 중첩의 특성에 공간감을 형성하게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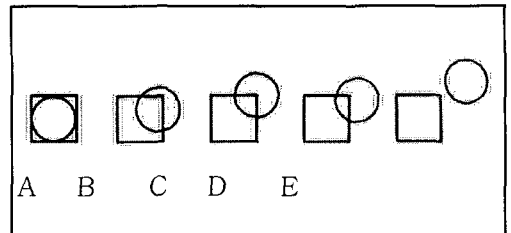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Rudolf Arenheim의 <Art & Visual Perception>에서 논의된 중첩 이론을 중심으로 중첩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집단성(togetherness)의 강화

<Fig. 1>에서 A는 중첩된 형태의 오리이고, B는 중첩 없이 홀로 걷고 있는 오리 두 마리이다. 이를 비교해 본다면 옆으로 전개된 B보다 한 단위 속의 공간에서 일치되는 A에서 두 동물의 평행성이 더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악에서 화음이나 불협화음의 효과도 여러 톤(tone)들이 계속적으로 연주되는 것보다 한 코드 안에서 집중됨으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첩은 보다 통일된 패턴 안에서 집중됨으로써 그 형태관계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때 얻어진 결합은 관련된 단위 가운데 어떤 것의 완전성을 감소시킴으로서 서로 건드리지 않는 독립된 존재 사이의 힘의 교환을 의미하는 '평등관계'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즉, 상호수정과 간섭을 통한 집단성(togetherness)이 생김을 알 수 있다.¹³⁾



<Fig. 1> 중첩된 형태의 오리,
(Art & Visual Perception. p. 117)



<Fig. 2> 결합위치에 따른 긴장감,
(Art & Visual Perception. p. 247)

2) 제거와 통합의 속성

중첩은 대상의 부분들을 제거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상들을 통합하는 속성을 가진다. 현대

화가들 중에서 팔이나 눈을 생략하는 경우, 그것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시지각을 박탈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첩은 그것들을 시야에서 치워 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자리에 현존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즉, 나머지 부분을 잘라 내었다기 보다는 감추어진 것으로 보이게 하여 무한성의 시각개념을 지닌다.¹⁴⁾

다시 말해서 중첩은 새로운 하나의 공간적 차원을 도입함으로써, 같은 화면 위에 여러 대상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하지만, 투영면에서의 합치관계는 그만큼 엄격한 깊이 차원의 분리가 필요하다. 즉, 한 대상물은 다른 대상물 앞에 뚜렷이 놓여져야 하며, 이것이 기술상으로 투명함(transparency)이 표현되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중첩이 일방적인 상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현대 미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초월하여 상호 중첩을 실천해 나간다. 하나의 영역(area)이 한 대상만이 아닌 다른 여러 대상에 소속되게 역설적으로 처리된다. 그리하여 이미 잘 규정된 형태의 특성을 파괴함으로써 어떤 단위는 온전한 모습으로 앞에 나오고 어떤 것은 가려진 채 뒤에 남는 전통적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둘 모두가 전체로 드러나고 또 가려지며, 또 동시에 앞으로 나오고 또 뒤로 들어간다. 즉, 중첩에서는 완전성이 고체성을 파괴하는 반면 불완전성은 고체성을 보호한다는 역설이 내포됨을 알 수 있다.¹⁵⁾

3) 깊이에 따른 공간적 분리

중첩의 표현은 깊이를 나타내며 공간감을 일으킨다. 모든 형상은 그림에 평행하게 나타나며, 후퇴하는 공간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¹⁶⁾

또한 중성적이고 비상징적 요소의 반복으로 얻어진 회화 공간은 시간성을 통해서 화면의 실제적인 깊이를 나타내며, 대상물의 윤곽선이 접히고 차단될 때 강한 깊이감을 주고, 면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차이가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¹⁷⁾ H. Helmholtz이 “위에 얹혀져 있는 물체의 윤곽선은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의 윤곽선과 만나는 곳에서 결코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두 개의 사물을 분간해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기술한 바에 의하면 상호 교집된 지점들이 어떤 모양

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공간 상태가 결정되어짐을 알 수 있다.

4) 긴장감 유발

중첩에서의 기본이 되는 축선에 이에 상응하는 또 다른 축이 도입된다면 디자인은 불균형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균형과 통일 그리고 변화와 긴장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어 확실적인 것을 탈피하여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각도를 지닐 수 있게 된다.¹⁸⁾

<Fig. 2>에서 사각형과 원이 결합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A와 E에서는 거의 긴장(tension)이 거의 없다. A에서는 위치, 크기 형상에 있어서 두 단위가 서로 잘 맞기 때문에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 E에서는 일체 접촉이 없어서 충돌의 기회가 없게 된다. 그러나 B와 D같은 중간 정도에 있는 도형들에서는 긴장이 뚜렷이 느껴진다. 이에 대해 P. Ratoosh는 “두 물체가 중첩 될 때, 그 두 물체의 외곽선이 만나는 곳에서만 중첩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고, 도형에 있어 두 단위가 서로 잘 맞거나 전혀 접촉이 없다면 긴장은 발생하지 않으며 충돌이 있을 때 두 도형이 포개져 공간적 효과를 강하게 한다¹⁹⁾고 기술하였다.

즉, 중첩에 의한 충돌이 있을 경우 변화와 긴장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어 다양한 효과와 생동감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패션에서의 중첩의 표현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중첩이 레이어드 기법과는 엄밀히 차이를 두고자 한다. 즉, ‘층이 있는, 겹친’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레이어드 기법은 의복을 겹쳐입는 착장방법을 의미하고²⁰⁾, 중첩은 의복 구성 단계에서의 디자인 기법을 의미한다. 레이어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각각의 완성된 의복들이며, 레이어드를 통해서도 변화 없이 각각의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중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완성된 의복이거나 미완성의 의복 부분들이며 중첩에 의해 하나의 새로운 개체로 변화된다. 또한 인체와 의복간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레이어드는 실제인체에 적

용되어야 하지만, 중첩은 실제인체 뿐만 아니라 가상인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중첩이 투명성의 지각을 전체로 한다는 점에서 인체의 범위가 확장됨으로서 가상 인체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또한, 패션을 관찰함에 있어 시지각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서의 중첩 개념을 디자인 구성상에서의 겹침뿐만 아니라 의복을 착용

하는 인체와 인체의 겹침까지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인체와 가상 인체가 중첩되는 작품, 인체와 의복이 중첩된 작품, 의복 형태가 중첩되는 작품을 중심으로 중첩의 표현적 특성을 집단성, 양면성, 공간감, 긴장감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1. 집단성

집단성은 중첩의 특성 중 집단성이 강화되는 특성에서 유추된 개념으로 중첩에 의한 집단성이란 동일한 의복 자체나 의복의 일정한 부분을 집단적으로 중첩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첩에 의해 의복은 커다란 부피감을 형성하게 되며, 동일한 형태의 반복에 의해 더욱더 시각적 특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은 의복형태가 중첩되는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Fig. 3, 4>와 같이 Viktor & Rolf는 2003-04 A/W에서 컬러 그라데이션기법과 함께 V-zone을 확대한 셔츠로 상체를 강조하였으며, 동일한 컬러와 패턴을 8겹으로 겹쳐 제작된 재킷은 기능성과는 무관한 형태미를 보여줌으로서 시각적 집중의 효과를 나타낸다.

Sarli 역시 <Fig. 5>에서 소매에 여러 층으로 집단적 중첩을 시도함으로써 어깨를 강조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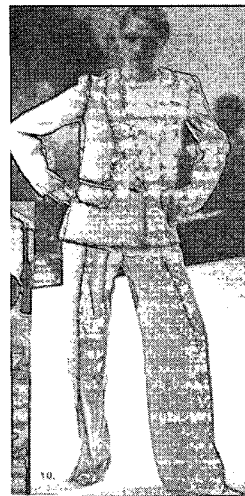
<Fig. 3> Mode et Mode No.323, '03-04A/W Viktor & Ro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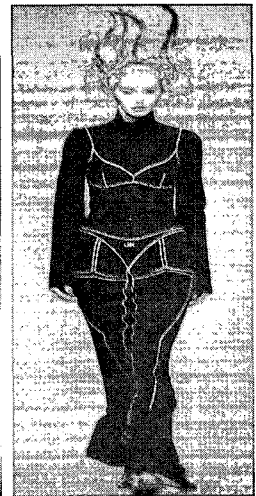
<Fig. 4> Mode et Mode No.323, '03-04A/W Viktor & Ro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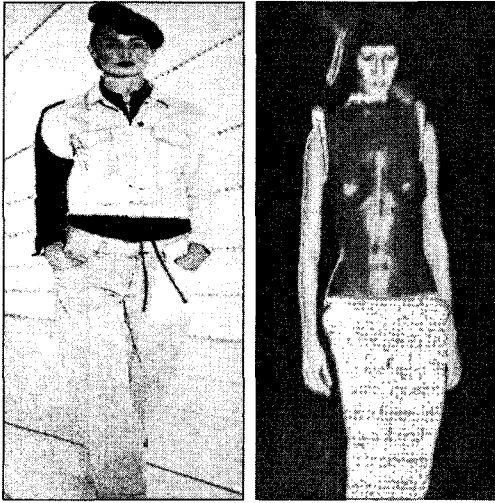
<Fig. 5> Book N. 41 '99 S/S F. Sarli



<Fig. 6> Collezioni N.78 '00-01A/W P. Humbert



<Fig. 7> Collezioni Donna N.70, '00 A/W J. Koshino



〈Fig. 8〉 Collezioni N.79, '01 S/S H. Chalayan

〈Fig. 9〉 Collections Vol. 20, '99-00A/W Givenchy

패션에서 중첩에 의한 집단성은 의복에 있어 바디스, 어깨 소매 등 특정한 부분의 집단적 반복과 강조를 통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게 하는 과시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작품들은 다양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형태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된다.

2. 양면성

패션에서 중첩의 양면성은 상반되는 개념이 병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거와 통합의 양면성, 은폐와 노출의 양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거와 통합의 양면성은 의복 형태의 중첩 작품과 인체와 가상인체를 중첩시키는 작품에서 나타나는데, 의복에 다시 새로운 의복 구성선을 중첩하거나 다른 소재나 의복의 형태를 관통·관입시킴으로써 표현된다. Pascal Humbert는 〈Fig. 6〉에서 의복의 구성선을 스케치로 표현함으로써 화이트 슈트위에 블랙의 구성선을 대비되는 색상으로 중첩시켰다. 이는 의복형태의 중첩과 인체와 가상인체의 중첩이 동시에 표현된 작품으로, 봉제에 의한 구성선을 무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구성선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Junko Koshino 역시 검정 옷에 흰색 라인

으로 언더웨어 라인을 스케치로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인체에 두 개의 의복이 동시에 착용된 형태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Fig. 7). 이러한 중첩의 표현방법은 고정관념의 강요에 대한 거부와 반성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사려된다.

또한, 여러 존재물들이 동일한 공간이나 공간적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동공간 효과²¹⁾라 하여 본질적인 공간이 무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Hussein Chalayan은 〈Fig. 8〉에서 소매가 긴 셔츠위에 박스형의 짧은 재킷이 서로 관통·관입된 것으로 의복 형태의 중첩을 보여준다. 블라우스와 재킷의 칼라는 각각 분리된 형태이지만 소매나 바디스 부분은 같이 봉제되고, 재킷과 셔츠의 소매는 서로가 다른 소매 안으로 관입된 형태로서 제거와 통합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첩은 엇갈림이 상당히 애매 모호한 상태를 자아내는데, 한 단위는 앞으로 나와 중첩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뒤쪽으로 들어간 상태로 중첩됨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 쾌감 등의 재미를 유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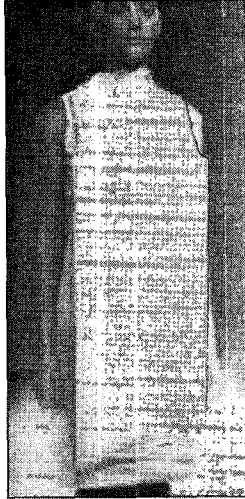
흥미는 권태에 대한 부정으로서 세계 속에 연루된 자신의 존재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 낼 수 있게끔 해줌으로서 세계를 즐기게 한다.²²⁾ 그러므로 중첩의 제거와 통합의 속성은 의복을 흥미롭게 하여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희적 특성을 지니며, 무거운 관념적 생활을 털어 버리고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자하는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중첩의 제거와 통합 속성에서 더욱 진전되어 패션에서는 은폐와 노출의 양면성도 나타나는데, 이는 인체와 가상의 인체가 중첩되는 작품에서 나타난다. 라텍스나 플라스틱 등은 소재 특성상 인체 바디를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재의 사용은 관찰자로 하여금 의복이 아닌 신체로서 인지하게끔 한다. Givenchy의 작품인 〈Fig. 9〉는 인공적 신체형태의 의복으로서 신체를 변형·왜곡시켰다. 의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듯이 인체의 형태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서 의복을 제거하는 동시에 통합하는 이중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는 Issey Miyake, John Galiano, Givenchy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으며 유머와 함께 에로

티시즘이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Fig. 10> Collezioni Donna N.67, '99 S/S M. Margiela



<Fig. 11> Fashion News Vol.51, '99 S/S H. Chalayan



<Fig. 12> Collezioni N.93, '03 S/S Gaultier Paris

3. 공간감

선이나 색면(patch)은 그 밝기와 색채에 의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으로부터 구별되며, 이 구별성은 경계성을 결정하게 되며 중첩은 상대와

관련하여 시선이 화면을 직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경계에는 깊이가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

즉, 공간감은 중첩의 깊이에 따른 공간적 분리특성이 차용된 것으로 의복형태의 중첩과 인체와 의복의 중첩을 통해서 표현된다.

Martin Margiela의 작품<Fig. 10>은 의복형태의 중첩과 인체와 의복의 중첩이 동시에 표현되는 작품이다. 전면과 후면의 의복에 이질적인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돌출과 축소에 의한 깊이감은 물론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에 의한 양감의 차이로 인해 두 개의 의복으로 구별되어 보이게 한다. 이러한 형태의 중첩에서 축소는 사물을 돌출되어 보이게 하여 바탕의복 분리를 통한 공간감을 표현하며, 동시에 두 개의 인체가 중첩되어 보임으로서 인체와 가상 인체 사이의 공간을 지각하게 한다.

동일한 면 혹은 물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방향성을 지니게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자동 운동적 착시라고 한다.²³⁾

Hussein Chalayan의 화이트 원피스<Fig. 11>은 인체와 의복이 중첩된 작품으로, 동일한 형태를 한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겹침으로서 움직임의 표현효과를 통하여 3차원적 공간을 형성한다. 이는 깊은 공간적 분리에 의해 방향성이 있는 운동을 표현한 것이며 이동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긴장감

중첩이 판면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실제적인 차이가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패션에서의 중첩에 의한 긴장감은 착용의 의미를 탈피할 때 발생된다.

새로운 가상의 인체 축선이 도입되어 실제 인체 축선과 중첩됨으로서 패션의 기능적 측면과 형태간의 관계성을 거부한다.

Gaultier Paris의 <Fig. 12>는 인체의 앞부분에 완성된 재킷을 걸친 형태로서, 인체와 의복의 관계가 착용의 의미가 아니라 달고 다니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때 이루어지는 중첩은 의복이 실제 인체가 아닌 다른 가상의 인체 축선에 도입됨으로서 은

밀한 노출이 이루어지고 긴장감을 발생시킨다.

의복 형태의 스케일의 축소는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 신체를 노출시킴으로서 '맞음새'의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미적 다양성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의복 구성에 있어 변화를 유발시키게 되어 의복과 인체의 고정성 붕괴는 물론 모든 대상이 형식화되어 밀도의 공간을 형성하게 되며 유희성과 함께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표현적 특성에 따른 중첩의 특징과 내적의미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IV. 결론

현대라는 불확실한 공간에서의 현상들은 패션에서 조직화된 중첩구조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접합의 원리는 근본이나 원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표출시킴으로서 의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의미구조를 확장시킨다.

중첩의 표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첩의 형식은 의복형태의 중첩되는 작품, 인체와 의복의 중첩되는 작품, 인체와 가상인체가 중첩되는 작품을

<표 1> 패션에 차용된 중첩의 표현적 특성

중첩 특성	패션에 차용된 중첩			대표적인 디자이너
	외적형식	특성	내적의미	
집단성의 강화	<u>의복형태의 중첩</u> · 패턴의 집중성 · 칼라, 소매의 부분 중첩 · 면적 확대 · 입체감 부여	집단성	· 우월감 표현 · 자신의 영역 확대 ⇒ 과시성 · 새로운 형태미에 대한 욕구 유희성 · 고정관념에 대한 거부와 반성	Viktor & Rolf F. Sarli
제거와 통합의 속성	<u>의복형태의 중첩</u> <u>인체와 가상인체의 중첩</u> · 의복의 구성선 중첩 · 봉제기법의 표면화 · 단편의 조합 · 상호관입, 관통	양면성	· 행복한 생활의 영위 · 구조를 탈피한 자유로운사고 ⇒ 유희성 · 무한성의 시각개념	P. Humbert J. Koshino H. Chalayan
	<u>인체와 가상인체의 중첩</u> · 인체 구조의 표면화		· 노출과 은폐의 이중성 ⇒ 에로티시즘 · 새로운 인체 모형 암시	I. Miyake J. Galliano Givenchy
깊이에 따른 공간적 분리	<u>의복형태의 중첩</u> <u>인체와 의복의 중첩</u> · 축소에 의한 공간감 형성 · 방향성 있는 배치	공간감	· 자동 운동적 착시효과 · 새로운 형태미추구 ⇒ 이동성 · 전통적 공간 관계 파괴	H. Chalayan M. Margiela
긴장감 유발	<u>인체와 의복의 중첩</u> <u>인체와 가상인체의 중첩</u> · 스케일의 축소 · '맞음새'의 의미 해체 · 위치전환 · 착장방법의 무시	긴장감	· 노출에 의한 긴장감 발생 ⇒ 에로티시즘 · 권태에 대한 부정 유희성 · 다양한 착장방법 제시	Gaultier Paris Eva Biut

중심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성은 중첩의 특성 중 집단성이 강화되는 특성에서 유추된 개념으로 의복형태가 중첩되는 작품에서 나타난다. 의복의 구성요소인 칼라나 소매 등을 여러 겹으로 겹침으로서 특정부분의 면적을 확대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의복에 입체감을 부여하여 과시적 효과를 나타내며,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미를 제안한다.

둘째, 양면성은 중첩의 제거와 통합의 속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서로 다른 것이 병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거와 통합의 양면성은 의복형태의 중첩형식에 의해 표현되며, 봉제기법의 표면화와 구성선의 겹침, 상호 관입과 관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무한성의 시각개념으로 흥미와 놀라움을 유발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유희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은폐와 노출의 양면성은 라텍스나 플라스틱 소재의 특성으로 인체구조를 표면화시킴으로써 인체와 가상인체의 중첩형식으로 유희성과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

셋째, 공간감은 중첩의 깊이에 따른 공간적 분리 특성이 차용된 것으로 의복형태의 중첩과 인체와 의복의 중첩을 통해서 표현되며, 방향성 있는 배치는 자동 운동적 착시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때 생성되는 방향성에 의한 움직임의 표현효과를 이동성이라 명명하였다.

넷째, 긴장감은 인체와 의복의 중첩과 인체와 가상인체의 중첩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스케일의 축소나 '맞음새'의 의미를 해체함으로써 노출에 의한 긴장감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긴장감은 노출된 인체를 인지하게 함으로서 유희성과 함께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

패션에 나타나는 중첩의 표현방식은 주관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독창성을 띠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겹침에 의한 새로운 하나의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긋남과 임의성에 의해 시각적 충격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중첩의 방법은 세계관의 변화와 더불어 디자이너의 주관적 경향에 의한 디자인 방법론 변화에 영향을 주며 새로운 패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첩의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의복형태의 중첩, 인체와 의복의 중첩, 인체와 가상인체의 중첩 형태에 한정하여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투명성과 중첩의 관계를 논하였던 콜린 로우의 투명성 이론을 접목한다면 중첩 표현 형식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며, 더불어 중첩을 이루는 구성요소에 따른 심도있는 연구를 한다면 패션에서의 중첩의 개념을 더욱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M. Morgado (1996). Coming to terms with Postmodern: Theories and concepts of contemporary culture and their implications for apparel schola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0, pp. 79-283.
- 2) 박인관 (1988). 시각언어의 상징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2.
- 3) 김한중 (1999).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의 메시지 표현과 해석-본 연구자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8.
- 4) Rudolf Arenheim은 독일 태생으로 형태심리학을 전공하였으며, 1940년 이래 미국, 사라로렌스 대학교수로 재직. 저서로는 「예술로서의 영화」, 「회화의 발생」, 「예술심리학에 관하여」 등이 있음.
- 5) 김은경 (2001). 해체주의적 공간 구성에 나타나는 콜라주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5.
- 6) Colin Rowe (1986).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Transparency: Literal and Phenomenal*: 윤재희·지연순 역. 근대건축론집, 세진사, p. 185.
- 7) 박경주 (1995). 콜라주(collage)에 의한 심층적 회화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3.
- 8) 김현미 (1995). 중첩에 의한 공간 역동성 및 연속성의 표현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7.
- 9) Rudolf Arenheim(1982). *Art and visual perception*. 김춘일 역. 미술과 시시각. 홍익사, p. 146.
- 10) Colin Rowe (1986). *op. cit.* p. 186.
- 11) *Ibid.* pp. 195-196.
- 12) 김광현 (1986). Colin Rowe의 "現像의 透明性"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지, 2(1), p. 65.
- 13) Rudolf Arenheim (1982). pp. 149-150.
- 14) *Ibid.* p. 119.
- 15) *Ibid.* pp. 133-134.

- 16) Gyorgy Kepes (1989). *Language of vision*. 유한태 역. 시각언어. 대광서림, p. 76.
- 17) 김은숙 (1991). 관계적(Relational)구조에 의한 조형공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7.
- 18) 김은경 (2001). *op. cit.* p. 54.
- 19) Rudolf Arenheim (1982), pp. 246-247.
- 20) 조규화 외 2인 (1995). *Fashion dictionary*. 경춘사, p. 102.
- 21) Albert Rothenberg & Robert S. Sobel (1990). A creative process in the art of costume desig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1), p. 27.
- 22) Karsten Harries (1987). *The meaning of modern art- a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오병남·최연희 역. 현대미술. 서광사, pp. 94-95.
- 23) Marian L. Davis (1996). *Visual design in dress*(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p. 52.